



## 중국 리스크와 해외사업 지역다변화

전용식 연구위원, 이소양 연구원

2016년 7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.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자국 산업에 영향이 미미한 관광, 문화콘텐츠, 유통,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임. 일본과의 영토분쟁 사례에서 나타난 중국의 관광 분야에서의 경제적 압력은 약 2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분석됨. 또한 중국의 경제적 압력 조치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, 중국에 진출한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.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“중국 리스크(China Risks)”로 인식될 수 있는데, 해외사업 지역다변화를 통한 중국 리스크 분산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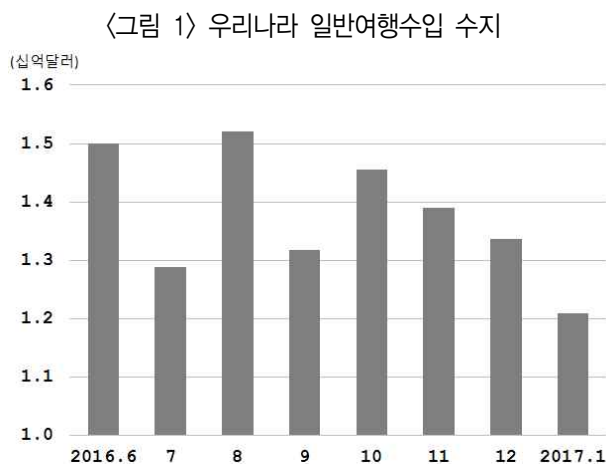
- 2016년 7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발표를 전후로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음.
  - 우리나라의 일반여행수입 수지는 2016년 6월 15억 10만 달러에서 2017년 1월 12억 850만 달러로 약 2억 9,160만 달러 감소(월평균 3.04% 감소)함(<그림 1> 참조).
    - 전년동기 일반여행수입 수지가 월평균 4.3%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큼.
  - 중국에 대한 수출건수는 2016년 6월 209,811건에서 2017년 1월 127,268건으로 7개월간 평균 6.9% 감소하여 전년동기의 5.9%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.
    - 반면 수출금액은 같은 기간 월평균 0.8% 증가하였고 2017년 1월 무역수지는 28억 463만 7천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8.5% 증가함.
-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압력 수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불투명함.<sup>1)</sup>
  -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해 이웃 국가인 한국의 정국이 안정을 유지하

1) 新浪新闻(2017. 3. 10), “朴槿惠遭弹劾下台, 下届总统会停止部署萨德吗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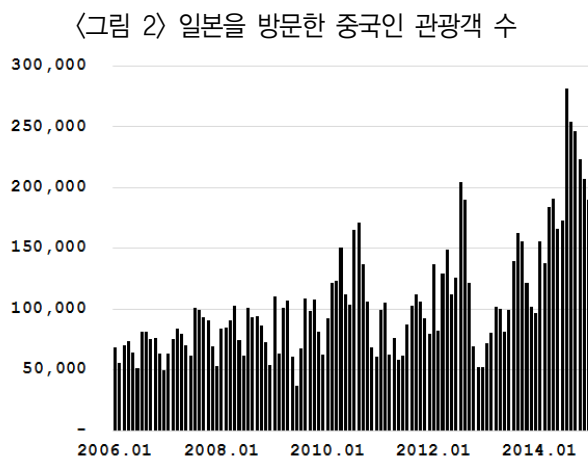
- 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인했지만, 비판 수위가 한층 낮아졌음.<sup>2)</sup>
-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 차기 정부의 사드 배치 속도 완화나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압력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됨.

■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서 나타난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,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됨(그림 2) 참조).

- 2010년 발생한 일본과의 영토분쟁 직전인 2010년 8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171,503명에서 2011년 5월 58,608명으로 감소함.
  -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선박이 나포된 이후 중국은 장관급 교류 중단, 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, 일본여행 자제를 요청함.<sup>3)</sup>
-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귀속 조치 이전인 7월 204,207명에서 2012년 11월 51,993명으로 감소함.
  - 2012년 7월 수준인 20여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됨(2014년 7월 281,309명).



주: 국제수지 기준.  
자료: 한국은행.



자료: 일본정부관광국, 「訪日外客數」.

■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자국에 대한 충격이 적은 문화콘텐츠, 관광, 화장품 및 소비재 그리고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, 향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기업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음.

2) 腾讯新闻(2017. 3. 10), “林權惠被彈劾, 中国外交部: 希望韩国(保持政局稳定)”.

3) 일본정부관광국, 「訪日外客數」, 각 호.

- 2010년 중국 선박 나포 이후 약 1년 7개월 후인 2012년 4월에서 9월 기간 동안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.2% 감소함.
-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귀속 조치 이후 중국 관영 언론들의 대일본의 비판 공세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반일시위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벌어졌음.
  - 또한 중국인의 폭력적인 반일 시위로 인해 중국 내 일부 일본 자동차기업의 공장 생산 중단 및 편의점 영업중단 사건도 발생하였음.

■ 경제적 압력 조치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-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합자기업의 형태로 중국에서 국내 기업이 아닌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.
- 중국에 진출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고객 대부분이 주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 내 반한 시위로 국내 제조업 공장의 생산이 중단되면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.
  - 손해보험 대형 3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, 모두 독자(현지) 법인이며 경영성과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임.
  -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2년 8월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14,394개인데, 반일 폭동과 파업으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피해규모는 최대 100억 엔에 이름.<sup>4)</sup>

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사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 확대될 경우 해외사업의 위험이 확대될 수도 있음.

- 2016년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국점포 총자산은 202.2억 달러로 전체 해외점포 총자산 888.6억 달러의 25%에 이름.<sup>5)</sup>
  - 미국 131.9억 달러, 홍콩 115.2억 달러이며 싱가포르 56.8억 달러, 인도네시아 43.1억 달러, 베트남 41.3억 달러 순임.
- 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의 35%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.
  - 손해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은 11개인데 중국 3개, 인도네시아 3개, 베트남 2개, 싱가포르 2개, 홍콩 1개임.
  - 생명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은 중국 3개, 태국, 베트남, 인도네시아 각 1개로 중국 진

4) 박정희(2012), 「일 대형손보사, SRCC 특약의 신규 계약을 중단」, 『KiRi 리포트』, 제203호, 보험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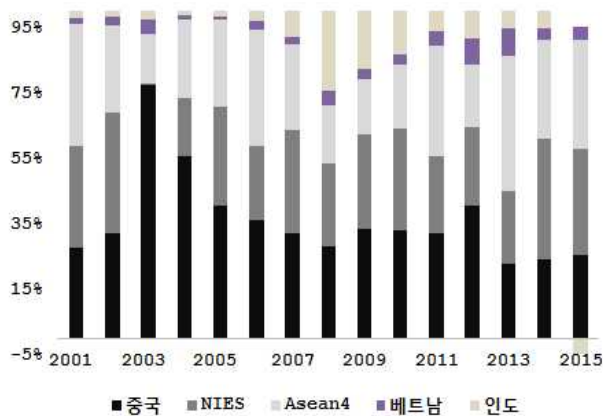
5) 금융감독원(2016. 10. 4), “2016년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”.

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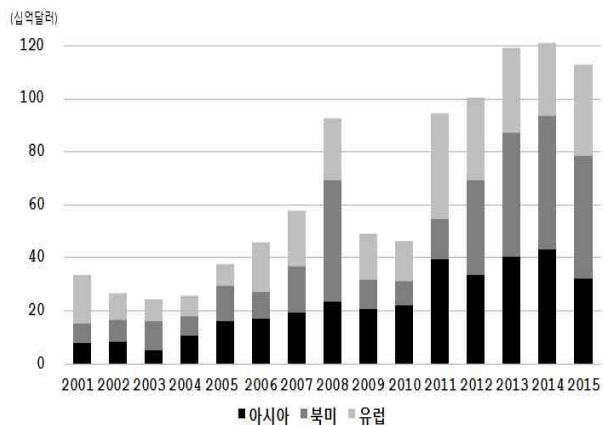
■ 해외사업 지역다변화를 통해 “중국 리스크(China Risks)”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.

- Iida(2015)에 따르면 “중국 리스크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위험으로 2010~2012년간 촉발된 반일감정 확산 등인데,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한감정도 우리 기업에게는 정치적 위험임.<sup>6)</sup>
-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China Plus One 전략을 2003년 사스발생 이후부터 추진하고 있음.<sup>7)</sup>
  - China Plus One 전략은 일본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태국, 베트남, 홍콩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임.
  -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은 2003년 79%에서 2010년 33%, 2015년 27%로 감소함(〈그림 3〉 참조).
- 중국 리스크 분산 전략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가 2011년 전후로 증가하고 있음(〈그림 4〉 참조). **kiri**

〈그림 3〉 일본 기업의 아시아 국가별 직접투자 비중



〈그림 4〉 일본 기업의 지역별 직접투자 금액



주: 1) 해외직접투자 기준.  
 2) NIES는 우리나라, 싱가포르, 홍콩, 대만, Asean 4는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 등임.  
 자료: 일본무역진흥기구.

6) Keisuke Iida(2015. 8), “Political Risks and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ea: A Case Study of China-Plus-One”, *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*, Vol. 13-2, pp. 383~410.  
 7) 일본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감소 원인은 정치적 위험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, 세제혜택 감소, 위안화 변동성 확대 등 중국 시장의 매력도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함.